

【논문】

##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에 관하여\*

윤 보 석

【주제분류】 인식론, 경험론

【주요어】 경험, 정당화, 지각, 정당성 전이, 폐쇄성 원리, 독단주의, 라이트, 프라이어, 무어의 논증

【요약문】 경험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특히, 논문의 초점은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정당성 전이 실패”를 기반으로 한 비판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느냐에 있다. 라이트와 데이비스에 의해 도입된 정당성 전이 실패 개념은 경험으로부터 외적 세계 존재에 대한 증명을 도출하는 무어의 논변에 대한 한 강력한 비판을 제공한다. 반면, 경험의 정당화 역할을 심각히 받아들이는 독단주의(Dogmatism)와 같은 시각에서는 무어의 논변이 적절히 옹호될 필요가 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간략하게 정당성 전이를 폐쇄성 원리와 비교하여 정의하고, 둘째, 왜 정당성 전이 실패가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위협할 수 있는 지 설명한 후, 셋째, 그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정당성 전이 실패가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

\* 이 연구는 2006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1. 최근 인식론의 논의에서 토대론은 다시 부활하고 있는 듯하다.<sup>1)</sup> 대체로 말하여 이 논문은 토대론의 부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통상 토대론은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요구하였고,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적절하게 옹호하는 것은 토대론의 성공적 부활을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경험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 이 논문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인데, 특히,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정당성 전이 실패”를 기반으로 한 비판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느냐가 중심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정당성 전이 실패는 최근 외재주의와 자기지의 갈등에 관한 맥킨지의 논변에 적용되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무어의 논변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그것이 논의될 것이다.<sup>2)</sup> 논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간략하게 정당성 전이를 폐쇄성 원리와 비교하여 정의하고, 둘째, 왜 정당성 전이 실패가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위협할 수 있는 지 설명한 후, 셋째, 그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정당성 전이 실패가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2. 어떤 회의주의적 논변은 “경험이 믿음에 대한 정당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험의 신빙성(reliability)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해 있는데, 따라서 회의주의를 반박하는 한 방법은 바로 그 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의 한 유형이 지각 정당화에 대한

---

1) Michael Williams, “Doing without immediate justification”. p.203. 윌리엄스는 드폴과 봉쥬르를 최근 토대론 부활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프라이어, 브루어, 휴머, 드레츠키, 굽타, 맥도웰, 등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철학자들이 토대론 옹호와 관련되어 추가적으로 언급될 수 있다. 사실 이 논문에서는 봉쥬르와 같이 경험에 대한 믿음이 토대적 믿음이 되는 토대론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논문의 관심사는 정당성 전이 현상이며, 그것은 무어의 논변과 관련하여 제기되었고, 무어의 논변은 경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나는 손을 가지고 있다”)이 토대 믿음이 되기 때문이다. 주변외적 대상에 대한 믿음이 토대 믿음이 되는 토대론이 옹호될 수 있느냐가 이 논문의 관심사이다.

2) 맥킨지 논변에 대한 비판은 Martin Davies, “Externalism, Architecturalism, and Epistemic Warrant” 참조.

“독단주의(Dogmatism)”이다. 독단주의자는 그 전제를 부정함으로써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옹호하고자 한다. 독단주의에 따르면, 비록 내가 경험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기만적인 악마의 존재나 환각 경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도), 나의 경험은 여전히 세계에 대한 지식을, 최소한 세계에 대한 나의 믿음의 정당성을, 가져올 수 있다. 정당성 전이 실패는 이러한 시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고 정당성 전이 실패를 근거로 독단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이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정당성 전이 실패에 기초한 도전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그것이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에 대한 기존의 도전들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지 알아보기로 하자.

일상적으로 우리의 다양한 감각 경험은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자동차의 계기판을 보고 연료가 거의 없음을 알고, 소리를 듣고 전철이 도착하고 있음을 알며, 냄새를 맡고 빵이 타고 있음을 안다. 인식론의 논란거리는 경험과 세계 사이의 인과적인 연결을 넘어 인식적 연결이 존재하느냐에 있다.<sup>3)</sup> 왜 감각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이 철학적으로 문제시되었는가? 우선 위에서 경험과 세계 사이의 체계적인 관계의 몇몇 예들이 언급되었는데, 이러한 체계적 관계는 그 자체 경험적인 방법으로 도달한 결론이다. 즉, 경험과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주장이 이미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전제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전자가 후자에 대한 분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어떤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경험이 신빙성 있음을 알아야 한다면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지식에 도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sup>4)</sup> 왜냐하면, 경험의 신빙성 자체가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확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험이 신빙성 있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경험이 신빙성

3) 인과적 연결 자체가 인식적 연결이라는 주장을 반드시 배제하지는 않는다. 단지 그런 주장이 적절히 옹호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4) 코헨을 이 문제를 “the problem of the criterion”이라고 부른다. Stewart Cohen, “Basic Knowledge and the Problem of Easy Knowledge.”

있음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통적으로 회의주의자들은 착시(illusion)나 환각(hallucination)과 같이 경험이 세계와 어긋나는 경우에 주목하여 경험이 세계에 대한 인식론적 정당화를 제공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경험은 토대 믿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이 비록 외적 세계와 신빙성 있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도 주관적으로 동일한 경험이 그러한 연결을 결여할 가능성이 있다. 나는 어떤 시각 경험에 기초하여 “내 앞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다”라고 믿는다고 해보자. 환각은 컴퓨터 모니터가 앞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 시각 경험과 주관적으로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경우이다.<sup>5)</sup> 그렇다면 내가 현재 환각 경험을 하고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즉, 나의 경험을 놓고 볼 때 여전히 내가 그냥 환각 경험을 가질 지도 모른다면, 내가 과연 내 앞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음을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정할 수 있나? 우리는 환각의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배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기껏, “컴퓨터가 앞에 있거나 혹은 컴퓨터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결국 내 앞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에 대한 회의주의는 정합론에 동기를 부여한다. 물론 정합론자들이 지각 믿음이 정당화를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지각 믿음(perceptual beliefs)의 정당성의 원천을 경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하였다. 지각 믿음은 다른 믿음들과의 관계에 의해 정당화된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러한 정합론적 정당화가 반드시 적절하다고 생각지 않더라도, 그리고 정합론적 정당화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토대론적 정당화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경험에 주어진 것(the given)에 대한 비판(데이빗슨, 쉐라스, 봉쥬르 등에 의한)때문일 것이다. 토대적 믿음(basic beliefs)은 그것의 정당성이 다른 믿음으로

---

5) 컴퓨터가 앞에 있더라도 “내 앞에 컴퓨터가 있다”는 환각을 가질 수 있다(veridical hallucination).

부터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i)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ii) 믿음이 아닌 어떤 상태가 있어 그것이 토대적 믿음을 정당화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둘 다 어려움이 있다. 만일 토대적 믿음이 우리 주변의 물리적 대상에 관한 믿음이라면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믿음 외적인 요소에 호소해야 한다. “내 앞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와 같이 물리적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의식에 드러나는 현상에 관한 믿음은 그것의 진리가 주체에게 자명한가? 이 또한 논란의 여지가 많다. 현상적 감각에 대한 우리의 판단도 잘못될 수 있고 교정 가능성으로부터 면제되지 못한다. 그리고 의식 내면의 주관적 감각에 대한 믿음이 자명하다고 해도 그러한 믿음이 과연 외적 세계에 대한 믿음의 토대가 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데이빗슨에 따르면, 전통적 철학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사고는 다음과 같다.

마음은 의식 주체가 공연(벽 위의 그림자)을 보고 있는 극장과 같다. 그 공연의 주인공들은 “현상들”, 감각 자료, 켈리아, 경험에 주어진 것들이다. 무대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아끼는 일상적 대상들이 아니라 그것들의 재현들이다. 우리가 외적 세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내적 증거들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한다.<sup>6)</sup>

이러한 사고는 너무나 쉽게 외적 세계에 대한 회의주의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데이빗슨은 그 사고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대 믿음에 부정적인 모든 철학자들이 “주어진 것”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경험의 주어진 것(what is given)은 그 경험의 결과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판단(what we take to exist) 이전에 이미 경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다. 즉, 경험을 통해 우리가 세계가 어떠하다고 개념화하기 이전에 원초적으로 경험이 가지는 성질이다. 어른의 개념체계를 공유하지 않는 아주 어린 아이도 경험은 유사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설사 경험의 주어진 성질이 있다고

6) Donald Davidson, “Knowing one’s own mind”, p.34.

해도 도대체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주어진 것의 인식론적 역할이 문제이다.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기 위해선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해석 이전에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봉쥬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상태가 다른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 스스로 정당화될 필요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두 측면은 분리될 수 없다.”<sup>7)</sup> 즉, 어떤 상태가 가지는 세계가 어떠한 것이라고 재현하는 성질이 바로 다른 상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되지만 동시에 그 상태 자체가 정당화될 필요성을 요구하게 된다. 바로 그 상태가 말하는 대로 세계가 실제로 그러한가?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하나? 내가 그 상태의 권위에 의존하여 나의 믿음을 조정하였지만 그 상태의 권위는 애당초 어디서 오나? 그 두 측면을 분리하여 다른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있지만 자신 스스로는 정당화될 필요성을 가지지 않는 것을 찾는 시도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각 정당화(perceptual justification)에 대한 봉쥬르의 문제 제기는 다음 모델을 전제하고 있다.

M-1. 어떤 믿음이 다른 심적 상태에 기초해 있음으로서 정당성을 가진다면, 바로 그 심적 상태 자체가 정당화되어 있어야 한다.

즉, 정당성을 남에게 대여할 수 있기 위해선, 자기 자신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M-1 자체를 거부할 것이다. 즉, 경험이 믿음을 정당화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경험 자체가 정당화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지하 주차장을 돌면서 주차 공간이 한 군데 있음을 보았고 따라서 나는 “저기에 빈 주차 공간이 있다”는 믿음을 가

7) Laurence Bonjour, *The Structure of Empirical Knowledge*, p.78.

지게 되었는데, 그 지각 상태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감각 경험은 정당함 혹은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경험은 자기 자신의 정당함을 물을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믿음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의 인식론적 역할에 대한 대안적 모델은 무엇인가?

M-2. 어떤 믿음이 다른 심적 상태에 기초해 있음으로서 정당성을 획득한다면, 그 심적 상태의 내용이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

이 또한 지각 정당화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위의 주차장 예에서 “저기에 빈 주차 공간이 있다”는 나의 판단을 정당화하는 나의 시각 경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경험의 내용이 있다면 그 또한 “저기에 빈 주차 공간이 있다”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는 선결문제의 오류의 한 사례가 되며, 애당초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에게 시각 경험은 아무런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M-3. 만일 어떤 경험(P)이 믿음(P)을 정당화한다면, “일반적으로 P 처럼 보여 지면 P이다”라는 믿음이 정당해야 한다.

M-3의 문제점은 배경 믿음의 정당성이 어떻게 보장되느냐에 있다. 물론, 그 배경 믿음의 정당성은 그 믿음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default) 승인된다고 보고 M-3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sup>8)</sup> 그러나 이 모델의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가 경험에 기초하여 믿음을 형성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경험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 우리는 세계가 우리에게 현상되는 방식에 대한 믿음을 형성한 후 현상과 실제의 연관에 대한 배경 지

8) 정당성 전이 실패를 기반으로 독단주의를 비판하는 라이트와 데이비스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동적 정당화(default entitlement)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지각 정당화는 그러한 자동적 정당화에 의존한다.

식을 동원하여 그 다음 세계에 대한 믿음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계가 우리에게 현상되는 방식 그 자체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정당화하는 것 같다. 독단주의자와 같이 경험이 다른 믿음의 정당성에 의존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믿음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철학자들은 M-3을 받아들일 수 없다.<sup>9)</sup>

결과적으로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방식들이 다 부적절한 모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경험의 이성적 역할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마 경험이 결여된 경우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의식 탐구에서 많이 언급되는 맹시 환자(blindsight)의 경우 시계의 어떤 부분에 대해 아무런 시각 경험이 없다. 최소한 본인들이 그 부분을 전혀 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된 선택의 문제에서 맹시 환자들은 전혀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부분에 놓여진 물체의 특징에 대해 평균이상의 확률로 올바른 대답을 선택한다. 이를 테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놓여진 화살의 방향이 위를 향하고 있다고 할 때, 상, 하, 좌, 우 중 “상”을 선택한다. 그런데 맹시 환자가 자발적으로 “화살이 위를 향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정보가 간접적으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인 통제는 결여된 경우이다. 그런데 “화살이 위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는 가상의 맹시 환자를 상상해 보자. 이 경우에도 화살이 위를 향하고 있다는 믿음은 여전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화살에 대한 정보가 그의 생각을 인과적으로 촉발한 것은 사실이나 전자가 후자를 이성적으로 정당화해주지는 못한다. 마치도 어제 밤까지 골똘히 생각하던 문제의 해답이 아침에 갑자기 떠오르는 것처럼 세계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형성되는 경우에 우리는 그 생각에 대한 이성적 통제가 결여되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정당성의 결핍이 발생하는가? 한 자연스러운 대답은 “그 사람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이다. 비록

9) 위의 세 가지 모델을 기준으로 직접 지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한 논문은 Peter Markie, “The Mystery of Direct Perceptual Justification”이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보는 입수되었으나, 화살이 상, 하, 좌, 우 중 상을 향하고 있을 때의 특징적인 현상성(phenomenology)을 가지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화살이 위를 향하고 있다”는 믿음이 정당화되지 않은 것이다.

화살이 위를 향하는 특징적인 현상적 경험 없이 “화살이 위로 향하고 있다”는 믿음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해서 전자가 후자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현상적 성질이 인식론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추가되어야 하는가?

혹은, 도대체 경험이란 무엇이기에 인식론적 역할을 가지게 되는가? 지금 내 앞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자. 데이빗슨과 봉쥬르 등의 비판을 피해가는 한 방법은 “F형 경험”과 “F개념이 적용된 경험”을 구분하는 것이다.<sup>10)</sup> 전자는 F가 일반적으로 야기하는 경험이고, 후자는 F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이다. F형 경험은 F개념 없이도 가질 수 있는 경험이다. 2~3세 된 어린이도 국화꽃의 특징적인 모양을 시각적으로 구분해 낼 수 있으나, “국화”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경험적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은 아직 없을 수 있다. F형 경험만으로는 아직 경험 주체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계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 지 알 수 없다. 반면, F개념이 적용된 경험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내용을 주체가 그의 개념을 적용하여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F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 지각 정당화의 원천에 대하여 프라이어의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경험이 특별한 현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한다. 어떤 명제가 참임을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 당신이 어떤 심적 상태에 있음으로서 어떤 내용이 참임을 마치도 그냥 알 수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이러한 현상성은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성이 지각과 기억에서 실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신이 당신의 손을 보는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은 마치도 당신이 손이 있음을 그냥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마

10) 이러한 접근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김도식, 『현대 영미 인식론의 흐름』, Chapter 4 참조.

치도 손들이 앞에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성은 다른 심적 상태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현적 내용을 가졌다고 해서 다 이러한 현상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백일몽을 꾸고 있거나 시각적 상상력을 발휘할 때, 당신은 명제들(당신이 지각할 때와 동일한 명제들)을 재현하나, 당신이 그 명제들이 참임을 마치도 그냥 알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sup>11)</sup>

프라이어가 강조하는 것은 경험의 현상성(phenomenology)이며, P가 참인 것처럼 보인다는 현상적 상태가 반드시 개념을 포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재현적 내용이 있지만 그 재현적 내용이 개념화된 내용인지는 불분명하다. 최소한 프라이어는 개념적 경험 내용에 대해 명시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최근 많이 논의되는 경험에 대한 또 다른 한 이론은 선언주의(disjunctivism)이다. 선언주의는 빨간 사과를 보는 지각 경험과 마치도 빨간 사과를 보는 것 같은 환각 경험 사이에 근본적인 공통 성질이 있음을 부인한다. 소위 내적 공통 현상적 성질이 있어 이 때문에 두 경우가 다 “경험”이 되고 지각과 환각의 차이는 그것들이 우연히 외적 대상에 의해 촉발되었느냐 아니냐에 있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이에 반발하여 선언주의자들은 지각 경험은 환각 경험과 전혀 다른 유형의 심적 상태라고 주장한다. 지각 경험은 대상들에 대한 직접적 의식이어서 우리가 지각 경험을 하고 있을 때는 대상과 그것의 감각적 속성들이 우리에게 즉각 드러난다. 반면 환각 경험은 당연히 그런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물론 둘 다 소위 “마치도 빨간 사과가 앞에 있는 것 같은 현상성”은 있다. 그러나 선언주의자는 그 현상이 기껏 “우리가 빨간 사과를 지각하거나 혹은 마치도 빨간 사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이라는 선언적 조건으로 서술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sup>12)</sup> 따라서 비록 우리가 현재 지각 경험을 하고 있는지 분간 할 수 없다고 해도 만약 우리가 지각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

11) James Pryor, “What’s wrong with Moore’s argument?”, p.357.

12) 여기서 “선언주의”의 이름이 유래한다. 선언주의에 대한 가장 최근의 논의는 Adrian Haddock and Fiona Macpherson, *Disjunctivism: Perception, Action, Knowledge*.

상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봉쥬르/데이빗슨의 비판으로부터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지켜내려는 여러 경쟁하는 경험이론들이 있을 수 있는 데, 이들을 평가하는 작업은 이 논문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들 간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한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F개념이 적용된 경험”이던 선언주의자나 프라이어의 경험이던, 경험은 믿음과 다르다. 즉, 그 경험을 가지되 믿음은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록 나에게 빨간 사과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만일 내가 빨간 조명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면 나는 빨간 사과가 있다고 결론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빨간 조명이 있다면 빨간 사과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경험이 빨간 사과가 있다는 믿음의 정당화를 훼손하거나 혹은 무력화한다. 빨간 조명이 있다는 정보는 상쇄자이다.<sup>13)</sup> 그러나 정당성 전이 실패가 주목하는 가능성은 빨간 조명이 있다는 정보가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아니고 빨간 조명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보가 그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있다. 정당성 전이하기 위해서는 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쥬르/데이빗슨의 우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다고 해도 정당성 전이 실패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3. 정당성 전이(warrant transmission)는 그것과 유사한 폐쇄성 원리(closure)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지식(knowledge)이나 정당성(justification)이 그 지식의 주체가 알고 있는 논리적 함축(known entailment)에 닫혀 있다는 인식적 폐쇄성에 따르면, 당신이 P를 알고 있고, 또한 P가 Q를 함축함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Q를 알고 있다. 혹은 P에 대한 믿음이 정당하면 P가 함축하는 Q에 대한 믿음도 정당하다.

정당성 전이는 폐쇄성 원리보다 강한 명제이다. 타당한 논증 (그렇게 알려진)의 전제가 정당하면 그것의 결론도 정당하다는 것이 폐쇄성인데, 정당성 전이는 추가적으로 전제가 정당하기 때문에 바로 그

13) 김도식, 『현대 영미 인식론의 흐름』, 71쪽.

이유 때문에 결론도 정당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전제의 정당성을 확보했을 때 당신은 최초로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어야 한다. 이럴 경우에만 정당성은 전이한다.<sup>14)</sup> 선결문제의 오류(begging the question)는 폐쇄성 원리가 적용되지만 정당성은 전이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전제의 정당성을 확보했을 때 그제 서야 결론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의 정당성을 이미 받아들여야만 전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당연히 전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전제의 정당성을 확보했을 때는 이미 결론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된 경우뿐이다.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전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따라서 정당성이 전이하지 않는다. 결론의 정당성은 전이를 통하여 새로이 증가할 수 없다. 그러나 선결문제 오류의 경우에도 만일 전제가 정당하다면 당연히 결론도 정당함으로 폐쇄성은 성립한다. 라이트가 제시하는 보다 구체적인 예를 고려해 보자.<sup>15)</sup>

1. 철수가 하안 기둥 사이로 공을 차 넣었다.
2. 철수는 축구 골을 성공시켰다.
3. 따라서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2는 3을 함축한다. 그런데 만일 2에 대한 믿음이 정당하다면, 3에 대한 믿음도 정당하다. 따라서 폐쇄성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정당성이 전이하는가? 철수가 기둥 사이로 공을 차 넣었다는 사실이 축구 골 성공에 대한 증거가 되고 그 다음 따라서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다.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면 애당초 1이 2에 대한 증거가 되지조차 못할 것이다. 1이 2에 대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미 3을 받아들일 것이 요

14) 최초로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필요조건이지만 반드시 충분조건은 아닐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논문 후반부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15) Crispin Wright, "Anti-sceptics Simple and Subtle: G. E. Moore and John McDowell".

구된다. 1이 3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정당성이 전이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주변에서 축구에 대한 영화촬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하자. 1은 더 이상 2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의 정당화 힘을 복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한 것은 3에 대한 독립적 증거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축구냐 아니면 영화 촬영 장면이나 물일 것이다. 진짜 축구 경기임을 알게 될 때, 다시 당신은 축구 골이 들어갔다고 정당하게 믿을 수 있다. 그러나 3으로 정당성이 전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에 대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3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얻게 되지 않는다. 3에 대한 유일한 이유는 여전히 옆 사람들의 진술이며, 바로 그 것이 1이 2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된다.<sup>16)</sup>

그렇다면 정당성 전이가 실패하는 논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당성 전이 실패가 왜 나쁜 것인가? 라이트에 따르면, 타당한 논증이 유용한 한 이유는 결론의 진리에 대해 확신하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의심을 이성적으로 제거할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다. 타당한 추론이 정당성을 전이한다면 바로 그러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미 결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전제를 정당화하는 증거에 의해 설득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타당한 논증은 최소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정당성이 전이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타당한 논증을 펼친다고 해도 결론을 의심하는 사람을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없게 된다. 폐쇄성 원리가 성립되나 정당성 전이가 실패하는 논증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무어의 논변을 논의해 보자. 무어의 논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sup>17)</sup>

- I. 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 II. 나는 손이 있다.
- III. 외적 세계가 존재한다.

16) Crispin Wright, *Ibid.*, p.335.

17) G. E. Moore, "Proof of an external world". 무어의 이 논문 마지막 부분에서 무어의 논증이 등장한다.

무어는 마음 밖의 물리 세계를 일체 부정하거나 회의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손을 흔들며 일단 자신의 손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 후 손이 있다는 사실이 외적 물리 세계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함축함으로 따라서 외적 세계의 존재를 “증명”하였다고 주장한다.

라이트와 같이 무어의 논증을 비판하는 철학자들은 그것이 폐쇄성 원리를 보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II가 정당하면 III도 정당하다. 그리고 무어의 손을 보는 경험이 자신의 손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정당화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I은 II에 대하여 최소한 파기가능한(defeasible) 정당성은 부여할 수 있다. I에 기초하여 II를 믿는 것은 정당하다. 그런데 무어는 I이 II에 제공하는 정당성이 II로부터 타당하게 추론된 결론에 까지 전이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즉, I이 II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바로 그 덕분에 III을 믿는 것도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당성 전이 실패에 기초한 비판은 바로 그러한 기대가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어의 논증은 위의 축구 예와 같이 정당성 전이 실패의 한 사례로 간주된다. III에 대한 믿음이 정당하다는 것이 바로 I이 II를 지지할 전제 조건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I이 다시 III을 독립적으로 정당화할 힘이 없게 된다. 경험은 애당초 III을 믿을 정당성 이상의 추가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III은 I이 II를 지지하기 위한 배경 조건이라는 말이 반드시 주체가 III과 I로부터 의식적으로 II를 추론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III에 대한 믿음이 암묵적으로나마 지각 정당화(perceptual justification)를 위해 요구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요구되는 이유는 애당초 외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경험으로부터 손이 있다는 결론을 정당하게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어의 논증은 외적 세계 회의주의자를 반박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애당초 손을 포함한 모든 외적 세계에 대해 회의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단 손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외적 세계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함축됨을 보이는 전략은 손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하는 경험

의 정당화 능력이 오로지 외적 세계의 믿음에 대한 정당성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성공적일 수 없다.

위와 같은 비판으로부터 무어의 논증을 지켜낼 방도는 없는가? 한 가지 방도는 독단주의에 기초한 대응이다. 비록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잘못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경험이 그것에 기반을 둔 당신의 믿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단주의의 주장을 보다 정확히 서술하기 위해서 우선 “즉각적 정당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즉각적 정당화(immediate justification): P에 대한 믿음이 즉각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선 그것의 정당성이 다른 믿음의 정당성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명제를 보자.

K: 저 컵은 하얗다.

당신 앞에 놓여진 컵을 보고 K를 믿게 되었다고 하자. 그 믿음이 정당하다면 그것이 다른 믿음의 정당성에 의존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최소한 그 컵을 본다는 경험이 믿음과 구분된다면 그리고 당신이 의식하지 않는 어떤 다른 믿음이 있어 무의식적으로 K에 대한 믿음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K에 대한 믿음이 즉각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즉각적이지 않은 믿음은 그 믿음의 정당성이 그 믿음이 추론된 다른 믿음의 정당성에 의존한다. 명제 K에 대한 믿음이 다음과 같은 믿음들로부터 도출되었다고 하자.

K': 저 컵은 하얗거나 노랗다.

K": 저 컵은 노랑지 않다.

이 경우에 K에 대한 믿음의 정당성은 오로지 K'와 K"에 대한 믿음의 정당성에 의존한다. 따라서 K가 가진 정당성은 즉각적이지 않

다. 즉각적 정당화에 대한 정의를 사용하여 독단주의를 다음과 같은 원리로 정의할 수 있다.

(DOG) 어떤 경험 E가 A와 C 각자와 양립 가능하다고 해도 (A와 C는 둘 다 참일 수 없다고 가정할 때), E는 A에 대한 믿음을 즉각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A가 세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고, C가 회의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어떤 대안일 것이다. 예를 들어, A는 “나는 손을 가지고 있다”이고, C는 “나는 손이 없는 통속의 뇌이다”는 명제이다. 만일 C가 참이면 A는 거짓이다. 당신이 경험을 통해 A를 믿게 될 때 이 믿음이 정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C가 참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독단주의자들의 대답은 “아니요”이다. (DOG)에 따르면, 무어의 경험은 손이 없는 통속의 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어의 경험이 손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즉각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물론 당신이 통속의 뇌라는 혹은 외적 세계가 없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당신의 경험은 당신이 손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정당화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당신의 경험이 손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정당화해주기 위하여 당신이 통속의 뇌가 아니라는 혹은 외적 세계가 있다는 증거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 예는 이와 유사한 상황을 기술한다.

- I. 벽이 빨강색인 것처럼 보인다.
- II. 벽은 빨강다.
- III. 따라서 벽이 사실은 하얗고 단지 빨간색의 조명이 비추고 있을 뿐인 것은 아니다.

만일 당신이 현재 있는 장소가 색깔 있는 조명들이 설치되어 있는 뮤지컬 무대임을 알고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벽이 빨강색인 것처럼 보이는 경험이 저 벽이 빨강다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힘은 감소할 것이다. 혹은 I이 II를 지지하는 힘을 침식 혹은 상쇄한다(undermine).



그러나 현재 당신은 당신이 있는 장소에 색깔 있는 조명들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벽이 흰색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냥 벽이 빨갭게 보일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의 경험은 최소한 II에 대한 초견적 정당화(prima facie justification)를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III의 부정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I에 근거한 II의 믿음이 정당성을 훼손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III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만 I에 근거한 II의 믿음이 정당할 수 있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는 무어의 논변을 정당성 전이 실패에 근거한 비판으로 지켜내는 한 방법을 제공한다.<sup>18)</sup> 다음 논증을 고려해 보자.

정당성 전이 실패의 유일한 모델은 배경 전제 모델(BP모델) 뿐이다.  
 무어 논변은 배경 전제 모델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어 논변은 정당성 전이 실패가 아니다.

배경 전제모델(Background Premise Model)에 따르면, 정당성이 전이되지 않는 이유는 I이 애당초 II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III이 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I이 다시 III을 지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정당성이 전이되기 위해서는 I이 II를 지지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I이 III을 지지하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BP모델에 따르면 I이 II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때 III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I이 III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I이 III을 지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선결문제의 오류와 같다.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III은 참이다.  
 왜?  
 I이 참이니까.  
 그런데, 왜 I이면 III인가?  
 I이면 II이니까.

18) 프라이어는 여러 논문에서 이러한 전략을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James Pryor, "What's wrong with Moore's argument?" 참조.

그런데, 왜 I 이면 II인가?  
III이 참이니까.

지금까지의 논의는 우리를 다음과 같은 딜레마로 인도한다. 한편으로 (DOG)는 경험에 대한 올바른 직관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세계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할 때,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물음에 대해 “그렇게 보았다”는 대응은 통상 정당성 물음에 대한 최종적인 위상을 가진다. 어떻게 해서 지하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는지 알았느냐고 물으면 그냥 보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진리를 결정하는 사실(truthmaker) 자체에 노출되지 않는가? 병아리를 만져서 암/수를 구별하는 감별사에게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고 물으면 그는 그냥 만져보면 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맥도웰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험은 “세계로의 열림(openness to the world)”이다. 무어의 경험이 “나는 손이 있다”는 믿음을 직접적으로 정당화해줄 수 있다. 손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 손과 나 사이에 아무런 인식적 매개체도 존재하는 것 같지 않다. 경험이 II에 대한 믿음을 독립적으로 정당화 한다면, II에서 III으로 정당성이 전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무어의 경험이 “나는 손이 있다”라는 믿음에 제공하는 정당성이 과연 “외적 세계가 존재 한다”는 믿음에 까지 전이하는 지는 의심스럽다. 얼룩말의 모양을 알고 있는 사람이 동물원에서 여러 동물 들 중 얼룩말을 가려낼 수 있음은 인정하더라도, 얼룩말의 모양을 아는 것이 그 동물이 사육사들이 장난치기 위해 교묘히 분장해 놓은 노새가 아니라는 것을 가려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록 그 동물이 얼룩말이라는 명제가 그것이 얼룩말처럼 분장한 노새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함축하더라도 여전히 모양이나 생김새는 그러한 장난이나 사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려내는 데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마찬가지로 외적 세계의 존재와 같은 추상적 개념의 적용여부에 대해 시각적 경험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비록 시각적 경험에 의해 알려진 명제가 그것을 함축하기는 하지만, 따라서

정당성 전이 실패를 기반으로 한 무어 논증 비판이 분명 올바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DOG)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정당성 전이가 드러내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가?

4. 우리가 원하는 것은 (DOG)를 인정하되 정당성 전이는 막는 것이다. 현재 논의의 구도 속에 우리가 원하는 선택지는 다음 도표에서 별표로 표시된다.

	즉각적 정당화 (O)	즉각적 정당화 (X)
정당성 전이 (O)	프라이어	
정당성 전이 (X)	★	라이트

즉, 프라이어를 따라 즉각적 정당화는 인정하되, 라이트를 따라 경험적 믿음의 정당화가 그것이 함축하는 중량급 명제(heavyweight proposition)에 대한 믿음에 까지 전이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여기서 중량급 명제란 통상 “외적 세계가 존재 한다”, “나는 악마에 의해서 기만당하고 있지 않다”, “나는 환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만이나 사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나의 경험은 신빙성이 있다”와 같은 명제들이다. 우리가 아는 일상적 지식이 중량급 명제들을 논리적으로 함축하기는 하지만 그 명제들은 우리가 일상적 지식을 획득하는 동일한 방식에 의해 참임을 알 수는 없다. ★를 옹호한다는 것은 즉각적 정당화와 정당성 전이 실패가 양립가능함을 보이는 것이다.<sup>19)</sup>

19) 이 논문의 한 심사자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였다. “토대론에 대한 메타 인식론적 비판, 즉 경험 자체의 정당성 부여기능에 대한 논란—“도그마티즘”—논란과, 토대적 믿음과 비트대적 믿음의 관계, 즉 믿음의 정당성(화) 구조에 대한 논란을 선명히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되는 약간의 혼란이 우려된다. 경험자체의 정당성 부여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일차적으로 토대적 믿음 존재 자체에 대한 논란이고, 예컨대 프라이어가 논란 하는 “전이의 문제” 토대와 상부 “헤비웨이트” 명제들간의 정당화 문제이다. 이 상이한 논란이 “전이”라는 용어로 통합됨으로써, --논문 내용자체는 구분

지각 정당화에 대해 독단주의적 입장을 택하더라도 여전히 정당성 전이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BP모델이 정당성 전이 실패의 유일한 모델이 아님을 함축한다. 프라이어는 사실 BP모델 이외의 다른 모델들도 고려한다. 예를 들어, 고차 배경 전제 모델(Higher Order Background Premise model, HOBP model)에 따르면, II에 대한 정당성이 III으로 전이하지 않는 이유가 III에 대한 정당성이 “II를 믿는 것이 정당하다”고 정당하게 믿기 위해서 전제로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프라이어는 다른 정당성 전이 실패 모델들을 고려하고 있다.<sup>20)</sup> 공통된 결론은 당신이 II를 믿기 위해 III이 실제로 성립하거나 혹은 III이 참이라고 미리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단지 III의 부정이 성립한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즉, 정당성 전이 실패의 다른 모델들이 요구하는 독단주의 부정을 받아들일 좋은 이유가 없음으로 따라서 독단주의자는 정당성 전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성 전이 실패가 독단주의의 부정을 요구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선 프라이어가 고려하는 모델들 외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가장 간단하지만 고려되고 있지 않는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얼룩말의 경우에서 보자면 얼룩말인지 아닌지를 그것의 생김새로 분간하는 것은 시각적 작업이지만, 얼룩말처럼 분장한 노새인지 아닌지는 통상의 생김새로 분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분장을 하는 목적이 바로 통상의 생김새로 구분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프라이어가 주장한 대로 우리는 사기나 장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있어야만 시각적 경험에 의해 얼룩말을 분간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을 하고 있지만--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통상 인식론에서 전자는 “정당성 발생”의 문제이고 후자는 “전이”의 문제로 구분되고 이를 준별하는 것이 논문 전체의 구도와 논지의 명확화를 위해 명료화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논쟁 당사자들인 프라이어와 라이트, 즉, 독단주의자들과 그 적들이 바로 그러한 구분을 보다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그러한 인식은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준다는 것이다.

20) Jim Pryor, “When warrant transmits”.

즉, 시각적 경험은 얼룩말에 대한 믿음을 즉각적으로 정당화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당성이 얼룩말처럼 분장한 노새가 아니라는 결론에 전이하는 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얼룩말처럼 분장한 노새인지 아닌지는 아예 얼룩말 생김새를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각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이 있다는 견해는 토대론을 반드시 함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대론에 따르면 정당성을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토대 믿음(foundational beliefs)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믿음들의 정당성이 궁극적으로 토대 믿음으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이다. 토대론의 후반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여전히 즉각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두 주장을 분리하는 것은 (DOG)에 대한 불필요한 비판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DOG)에 대한 한 강력한 비판은 만일 경험이 토대 믿음을 정당화하고 지식을 생성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서 결국 경험의 신빙성에 대한 지식까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토대 지식에 대한 비판에 동기를 제공한다.<sup>21)</sup> 토대 지식은 지식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DOG)를 지켜내기 위해선 (DOG)가 지나친 확장을 함축하지는 않음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DOG)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은 폐쇄성 원리를 반드시 문제 삼지 않는다. 정당성 전이는 폐쇄성 원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정당성 전이를 부정하는 것이 폐쇄성 원리의 부정을 함축하지 않는다. 물론 드레츠키와 같이 폐쇄성 원리 자체를 반대하는 철학자도 있다.<sup>22)</sup> 그러나 (DOG)에 반대하는 많은 철학자들은 폐쇄성원리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한다.<sup>23)</sup> 즉, 저 동물이 얼룩말임을 알면 저 동물이 얼룩말처럼 가장한 노새가 아님을 안다. 이미 폐쇄성 원리 자체 (정당성 전이보다 약한)에 의해 지식 혹은 정당성은 알려

21) (DOG)에 대한 비판은 Stewart Cohen의 위에서 언급된 논문이외에도 Roger White, "Problems for Dogmatism" 참조.

22) Fred Dretske, "Is knowledge closed under known entailment?"

23) John Hawthorne, "The Case for Closure", p.27.

진 함축에 의해 확장된다. 따라서 지식이 폐쇄성 원리에 의해 확장된다는 것이 논란거리가 아니다. 코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논쟁의 양쪽 모두 만일 우리가 그 책상이 빨강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이 빨간 조명이 비추어진 하얀 책상이 아님을 안다는 것을 인정한다. 비판의 요점은 우리가 그 결론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빨강을 보는 경험을 통해 그 책상이 빨간 조명이 비추어진 하얀 책상이 아님을 알 수 없다면, 논리적 함축과 폐쇄성 원리에 의해, 그 경험을 통해 그 책상이 빨간색임을 알 수도 없다.<sup>24)</sup>

그러나 과연 논리적 함축과 폐쇄성원리만으로 코헨이 주장하고자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다시 반복하자면, 폐쇄성원리는 다음과 같다.

X는 P를 안다.  
X는 P가 Q를 함축함을 안다.  
 따라서 X는 Q를 안다.

이 폐쇄성 원리를 무어의 논증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외적 세계의 존재를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손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손의 존재가 외적 세계의 존재를 함축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코헨이 필요로 하는 원리는 폐쇄성원리가 아니고 다음 원리이다.

X는 시각적 경험 E에 의해서 P를 안다.  
X는 P가 Q를 함축함을 안다.  
 따라서 X는 시각적 경험 E에 의해서 Q를 안다.

그런데 논리적 함축과 폐쇄성원리로부터 이 원리가 도출되지 않는다. 우리가 폐쇄성원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 시각적 경험 E에 의해서 내가 손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해서,

---

24) Stewart Cohen, Ibid., p.314.

시각적 경험 E에 의해서 내가 손이 없는 통속의 뇌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시각적 경험 E에 의해 내가 손이 있음을 알면, 내가 손이 있음을 알고, 이로부터 폐쇄성원리에 의해 내가 손이 없는 통속의 뇌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이로부터 원하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폐쇄성원리는 어떤 증거에 의해 당신의 믿음이 정당화되면 그로부터 논리적으로 함축되는 다른 믿음도 정당화된다고 말할 뿐이며 반드시 정당성이 전이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논리적 함축과 폐쇄성 원리에 독단주의적 정당화를 첨가하면 코헨이 원하는 결론이 도출되는가? E에 의한 P의 정당화가 독단주의적이라면, 지각 정당화가 다른 믿음의 정당화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리고 Q에 대한 믿음의 정당성이 가정될 필요가 없다. 만일 E에 의한 P의 정당화가 독단주의적이라면, Q가 E에 의해 최초로 정당화되었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시각적 경험 E가 P에 대한 믿음을 즉각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면, 폐쇄성원리에 의해 Q에 대한 믿음은 정당화된다. 그렇다고 해서 Q에 대한 믿음의 정당화의 유일한 원천이 P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해 주었던 바로 그 E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비록 E가 P를 정당화하고, Q는 P로부터 도출되었으나, Q의 정당화에 E의 흔적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Q는 P가 무엇에 의해 정당화되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여기서 만일 코헨이 E외에 정당화의 원천이 없음으로 따라서 Q의 정당성이 거기서 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자. 바로 이 주장이 정당성이 전이된다는 주장이며 따라서 선결문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독단주의적 정당화와 폐쇄성 원리를 융합하더라도 정당성 전이는 도출되지 않는다.

“독단주의적 정당화가 정당성 전이를 함축 한다”는 가정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독단주의적 정당화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성이 전이하지 않는지 따져보기로 하자. 다음의 경우에서 A와 C는 양립불가능하다.

E: 얼룩말을 보는 것 같은 경험

A: 얼룩말이 있다.

C: 얼룩말처럼 가장한 노새이다.

그러나 얼룩말을 보는 경험, E, 는 A와 C 모두와 양립가능하다. 즉, 경험 E가 주어졌을 때, A일 수도 있고 혹은 C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E가 그 중 하나인 A를 믿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있는가? E가 주어졌을 때 C일지도 모르는데 왜 하필 A를 믿는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A 혹은 C”를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러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다음 논증이 제시되었다고 하자.

E: 얼룩말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을 가진다.

A: 얼룩말이 있다.

~C: 따라서 얼룩말처럼 가장한 노새인 것은 아니다.

이 논증은 너무 터무니없어 보인다. C가 배제될 수 없어서 어떻게 A를 믿는 게 정당할 수 있냐고 묻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A를 믿고 그 다음 A로부터 ~C가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이유로 C를 배제해 버리는 것은 속임수 같다. 바로 이런 고려가 (DOG)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DOG)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과도한 반응인 것 같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성이 전이 된다.

E: 얼룩말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을 가진다.

A: 얼룩말이 있다.

D: 따라서 동물이 있다.

여기서도 A가 D를 함축하지만 위의 논증처럼 문제시되지는 않는다. 애당초 E가 주어졌을 때, A와 ~D는 서로 경쟁하는 대안들이 아니다. 얼룩말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이 그것이 동물이 아닐 수도 있음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E가 A를 독단주의적으로 정당화한다고 해도, 정당성이 전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위의 두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 C의 경우 “만일 C였다라도, 당



신은 여전히 E를 가지고 있다”가 참이 되나, “만일 ~D였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E를 가지고 있다”는 참이 아니다. 얼룩말처럼 가장한 노새가 사육사에서 거닐고 있었어도 당신은 똑같은 경험을 가졌을 것인데 어떻게 현재 경험으로부터 얼룩말이 있다고 정당하게 믿을 수 있는가? E가 A와 C 각각에 대칭적으로 양립가능할 경우 정당성 전이는 문제가 된다. 반면, 동물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경우는 정당성 전이가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자. 다음의 경우도 정당성이 전이되지 않는다.

E: 빨간 공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

A: 빨간 공이 있다.

C: 빨간 빛이 비추는 하얀 공이 있다.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논증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E: 빨간 공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

A: 빨간 공이 있다.

~C: 따라서 빨간 빛이 비추는 하얀 공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논증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E: 빨간 공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

A: 빨간 공이 있다.

D: 따라서 빨간 공이거나 혹은 노란 공이 있다.

A는 D를 함축하지만, (빨간 공이 있다)와 (빨간 공이 아니고 노란 공이 아니다)는 대칭적으로 E와 양립가능하지는 않다. 빨간 공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전자를 믿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무어의 논증으로 돌아가 보자.

무어-I

E: 손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

- A: 손이 있다.  
D: 외적 세계가 있다.

위의 논의에 따르면 무어-I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A와 ~D가 대칭적으로 E와 양립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손이 있으면 E를 가질 수 있지만, 외적 세계가 없다고 해서 E를 동일한 확률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 형태의 무어의 논증은 사정이 다르다.

- 무어-II  
E: 손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  
A: 손이 있다.  
~C: 손이 없지만 손으로부터 오는 자극과 동일한 입력을 가지는 통속의 뇌가 아니다.

여기서 A와 C는 E에 대하여 대칭적이다. E가 주어졌다고 할 때 대칭적으로 A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독단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정당성 전이 실패에 기초한 비판의 올바른 직관을 보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의 한 함축은 통상 중량급 명제로 분류되는 명제들, 외적 세계의 존재나 통속의 뇌가 아님 등, 내에서도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 정당성 전이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가 P를 알게 되는 방식이 반드시 P에 의해 함축된 명제의 참을 알게 되는 방식은 아니라는 설명에 기초하여 독단주의에 대한 찬/반 입장을 조율하고자 하였다. 프라이어 자신은 독단주의와 그에 반대하는 입장간의 조율을 다른 방식으로 제시한다. 무어의 논변이 결론에 대해 회의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회의를 이성적으로 제거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단주의 반대자의 입장이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변 자체는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전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독단주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응이 한 조율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sup>25)</sup> 위에서 제시된 방법은 프라이어가 전제하는 “독단주의적 지각 정당화가 참이면, 정당성은 전이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앞에서 언급하였던 독단주의적 지각 정당화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설명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논문의 중심적 주장은 단지 정당성 전이 실패가 독단주의적 지각 정당화 자체를 포기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투고일: 2009.03.31.  
심사완료일: 2009.05.14.  
게재확정일: 2009.05.18.

윤보석  
이화여자대학교

---

25) Ram Neta, “Fixing the transmission” 참조.

## 참고문헌

- 김도식, 『현대 영미 인식론의 흐름』, 2004, 건국대학교 출판부.
- Bonjour, L., 1985, *The Structure of Empirical Knowle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ohen, S., 2002, “Basic Knowledge and the Problem of Easy Knowledge”,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65.
- Davidson, D., 1987, “Knowing one’s own mind”, in *Subjective, Intersubjective, Obj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es, M., 1998, “Externalism, Architecturalism, and Epistemic Warrant.” in *Knowing our own minds*, (eds.) Wright & Smith & McDonald.
- Dretske, F., 2005, “Is knowledge closed under known entailment?” in *Contemporary debates in epistemology*, (eds.) Steup & Sosa.
- Haddock, A., and Macpherson, F., (eds.), 2008, *Disjunctivism: Perception, Action, Knowledge*, Oxford University Press.
- Hawthorne, H., 2005, “The Case for Closure”, in *Contemporary debates in epistemology*, (eds.) Steup & Sosa.
- Markie, P., 2005, “The Mystery of Direct Perceptual Justification”, *Philosophical Studies*.
- Moore, G. E., 1939, “Proof of an external world”,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25, 273-300.
- Neta, R., 2007, “Fixing the transmission: the New Mooreans”, *Themes from G.E. Moore: New Essays in Epistemology and Ethics*, (eds.) Nuccetelli and Seay (2007).
- Nuccetelli, S., Seay, G., 2007, *Themes from G.E. Moore: New*

- Essays in Epistemology and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 Wright, C., Smith, B., Macdonald, C., 1998, eds. *Knowing our own minds*, Clarendon Press, Oxford.
- Pryor, J., 2004, “What’s wrong with Moore’s argument?”, *Philosophical Issues*, 14.
- Pryor, J., “When warrant transmits”, *Wittgenstein, Epistemology and Mind: Themes from the Philosophy of Crispin Wright*, (ed.) Annalisa Coliva (to be published by Oxford).
- Steup, M., Sosa, E., (eds.), 2005, *Contemporary debates in epistemology*, Blackwell.
- White R., 2006, “Problems for Dogmatism”, *Philosophical Studies*, 131.
- Williams, M, 2005, “Doing without immediate justification”, in *Contemporary debates in epistemology*, edited by Steup & Sosa.
- Wright, C., 2002, “Anti-sceptics simple and subtle: Moore and McDowell”,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5, 330-48.

ABSTRACT

## On the Epistemological Role of Experience

Yoon, Bo-Suk

This paper presents a defense of the ordinary belief that sensory experiences play an indispensable role in our gaining knowledge about the external world. The focus of the discussion will be on whether the epistemological role of experiences can be defended against the criticism that is based on the notion of “warrant transmission failure” introduced by Wright and Davies. By utilizing the notion, they present a strong objection to Moore’s argument, which attempts to derive the existence of the external world from one’s having a certain experience. For those, like Dogmatists, who take the epistemic role of experience seriously, it is important to defend Moore’s argument in an adequate way. In this paper, first, the notion of warrant transmission will be discussed and compared with the closure principle. Then, an explanation of how transmission failure can be viewed as posing a threat to the epistemic role of experience will follow. Finally, it will be shown that the threat can be mitigated.

**Keywords:** Experience, Justification, Perception, Warrant Transmission, Closure, Dogmatism, Wright, Pryor, Moore’s Proof